

이범호 감독 “실 틈 없는 훈련…개막 전 완벽 컨디션 집중”

동양 1차 KIA 오키나와 스프링캠프를 가다



“개막 전까지 최상의 컨디션을 만드는 데 집중하겠습니다.”

이범호 감독이 이끄는 KIA 타이거즈 선수단은 일본 야마모토시 1차 스프링캠프에서 체력과 기술 훈련으로 여열을 마쳤다. 이후 지난 23일부터 열린 일본 오키나와 2차 캠프에서는 5차례의 연습경기를 통해 실전 감각 끌어올리고 있다. 지난 시즌 주축 선수들의 부상 등으로 하위권에 머물렀던 KIA는 올 시즌 다시 한번 대권을 차지하기 위한 열정을 이어가고 있다.

이범호 감독은 “1차 스프링캠프 때부터 많은 훈련량을 가져가고 있다. 선수들도 땀 흘려 스케줄을 짜서 몸 만드는 데 집중하고 있다”며 “훈련을 약하게 하면 부상은 없겠지만, 시간 여유를 주는 것보다 타이밍하게 가는 게 선수들에게 더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아수들은 시범경기 전 30타석까지는 경기장에서 확실하게 몸을 다지고 개막전에 들어갈려고 한다”며 “고참들도 몸을 빨리 만들라고 주문했다. 지난해보다는 더 빠르게 선수단 컨디션을

정답 없는 테이블세터진 과제…데일·김호령 등 시험 5선발 자리 두고 고심…황동하 등 마운드 구성 주력

끌어올리겠다”고 강조했다. KIA는 지난 시즌 실책 123개로 리그 최다를 기록했다. 2024시즌 146개로 실책 1위를 차지했던 것에 이는 불명예다.

이에 이 감독은 올 시즌 수비력 강화에 힘을 쏟고 있다. 다만 야수뿐만 아니라 투수들의 도움 또한 필요하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이 감독은 “수비가 제일 중요하다. 그동안 KIA는 초·중반 이후 타선의 힘으로 경기를 이끌어가는 유형의 팀이었다. 올해는 조금 더 세밀한 야구가 필요하다”면서도 “다만 실책에 대한 부분을 과하게 압박하면 오히려 실책을 피하기 위한 소극적인 플레이가 나온다. 이는 팀에게도 좋지 않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최근 (김)도영이가 수비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데일 또한 그렇다. 다른 선수들도 수비 훈련에 집중하고 있어 지난 시즌보다는 훨씬 상황이 좋아질 것”이라며 “투수력도 중요하다. 마운드의 힘이 좋아진다면 타구적인 면에서

도 야수들이 공을 더 처리하기 쉽다. 투수들이 좋은 구위를 가질 수 있게끔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KIA의 올 시즌 1~4선발은 제임스 네일-아담 울러-양현종-이리리로 사실상 정해졌다. 다만 5선발 자리가 문제다.

지난해 125.1이닝을 책임졌던 김도현은 팔꿈치 부상으로 빠른 합류가 어렵다. 여기에 5선발이었던 윤영철은 지난 시즌 말 토미존 수술로 올해 모습을 볼 수 없게 됐다. 결국 새로운 5선발 자원을 구해야 한다. 현재 후보로는 김태형, 황동하, 홍민규, 이태양 등이 있다.

이 감독은 “5선발 자리가 제일 걱정이야. 네일과 울러는 한국 경험자가 많아서 어느 정도 계산이 된다. 양현종도 이닝을 끌고 갈 수 있는 투수다. 이리리 역시 충분히 기대되는 선수”라며 “(김)태형, (황)동하, (홍)민규, (이)태양이 모두 가능성을 두고 있다”고 이야기했다.

또 “더 중요한 건 뒤에서 2이닝 이상 길게 끌고

갈 수 있는 선수들이다. 외국인 선수를 제외하면 모두 이닝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이다”면서 “양현종과 이리리는 빠른 타이밍에 10일 정도의 휴식을 줘야 할 것 같다. 이들이 힘이 떨어졌을 때 롱리프 자원을 활용해서 조절해주려고 한다”고 언급했다.

KIA 야수진은 박찬호와 최형우가 떠나면서 전력에 큰 공백이 생겼다. 타선 재편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특히 테이블세터진 구성이 이 감독에게 가장 큰 고민이다.

이 감독은 “현재 팀 중심타선은 다른 팀과 비교해도 전혀 뒤쳐지지 않는다. 하위타선도 마찬가지다. 결국 1~2번 타선이 굉장히 중요하다”면서 “유력한 리드오프 후보는 데일로 보고 있다. 데일이 앞선 타선에서 최다치를 만들어 준다면 올 시즌 경기에 많은 부담을 덜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2번에는 윤도현, 김호령, 카스트로 등을 점검해보고 있다. 여러 가지 방법을 고민 중이다”며 “타수는 최대한 빠르게 고정하려고 한다. 그제 선수한테도 심리적으로 더 편하다고 본다. 2~3가지 방안을 고민하면서 시범경기 중반쯤에는 개막전 타선을 확정할 생각이다”고 말했다.

송하중 기자 hajong2@gwangnam.co.kr



지난 1일 광주페퍼스타디움(영주체육관)에서 열린 흥국생명 배구단과의 전이예 2025-2026 V리그 여자부 6라운드 두 번째 경기에서 세트스코어 3-1 (25-21 20-25 25-23 25-16)로 승리한 AI페퍼스 선수단이 기뻐하고 있다. 사진제공=KOVO

‘매운맛’ AI페퍼스, 흥국생명 제압 ‘14승’ 달성

세트스코어 3-1...구단 최다승·승점 다시 경신 50% 승률 목표까지 4승 남아...조이 39점 활약

여자프로배구단 페퍼저축은행 AI페퍼스가 흥국생명을 제압하고 역대 최고 승리 기록을 또다시 갈아치웠다.

AI페퍼스는 1일 광주페퍼스타디움(영주체육관)에서 열린 흥국생명 배구단과의 전이예 2025-2026 V리그 여자부 6라운드 두 번째 경기에서 세트스코어 3-1 (25-21 20-25 25-23 25-16)로 승리했다.

그 결과 14승 18패 승점 41점을 기록, 리그 6위 자리를 유지했다. 이로써 구단 역대 단일시즌 최다 승·승점 기록을 다시 경신했다.

이제 리그 종료까지 남은 경기는 단 4경기. 남은 경기에서 모두 승리한다면 시즌 전 목표로 잡았던 50% 승률 달성 역시 가능하다. 여기에 5위 IBK기

업은행(승점 47점)과의 격차는 6점 차로 좁혀졌다. 창단 이후 매 시즌 최하위에 머물렀던 AI페퍼스는 역대 최고 순위를 끌어올릴 가능성이 높아졌다.

AI페퍼스는 이날 외인 조이가 양 팀 최다 39득점(공격성공률 52.78%)을 올리며 공격을 주도했다. 여기에 박은서가 15득점(공격성공률 41.18%), 시마무라가 9득점(공격성공률 58.33%)으로 팀 승리에 힘을 보탰다.

장소연 감독은 박은서-박은서(아웃사이드 히터), 조이(아포짓 스파이커), 하혜진·시마무라(미들블로커), 박사랑(세터), 한다혜(리베로)와 함께 경기를 시작했다.

1세트는 접전 끝에 AI페퍼스가 웃었다. 14-18

으로 밀린 상황에서 시마무라의 박은서의 활약을 앞세워 8연속 득점에 성공했다. 순식간에 흐름을 뒤바꾼 AI페퍼스는 이후 박은서의 연속 킥오픈과 조이의 오픈으로 1세트를 가져왔다.

2세트를 어렵게 내준 뒤 3세트에서는 다시 승부의 균형을 잡았다.

AI페퍼스는 21-17로 앞선 상황에서 4연속 실점을 하며 동점을 허용했다. 하지만 박사랑의 블로킹이 터지면서 분위기를 가져왔고, 조이가 가세했다. 조이는 22-21, 23-23 승부처에서 득점을 올리며 팀의 리드를 지켰다.

24-23에선 상대 정윤주의 공격이 실패하면서 25-23으로 2세트를 따냈다.

4세트는 AI페퍼스가 장악했다.

12-13에서 박은서, 조이의 연속 득점으로 4점을 더하며 16-13으로 달아났다. 16-14에서는 7연속 득점에 성공하며 승부에 쏠기를 박았다. 결국 조이의 연속 오픈까지 터지면서 경기를 승리로 마무리 지었다. 송하중 기자 hajong2@gwangnam.co.kr

제107회 전국동계체육대회 폐막

‘동계 불모지’ 광주·전남 선수단 열정 빛났다

광주, 종합 12위·전남, 종합 9위

전국 겨울 스포츠 대축제인 ‘제107회 전국동계체육대회’가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광주 선수단은 지난달 25~28일 강원도 일원에서 열린 이번 대회에서 6개 종목에 총 120명의 선수단을 파견해 종합순위 12위(종합득점 195점)로 대회를 마쳐 목표 달성에 성공했다.

광주는 이번 대회 사전경기에서 동메달 1개를 획득했다.

컬링 남자 15세이하부 준결승에서 광주체육(김현호·유태민·임강민·박해성)이 소양중학교(강원)에 아쉽게 패했다. 광주체육 선수들이 하계종목인 육상 훈련 경험을 바탕으로 동계기간 동안 광주빙상장에서 꾸준히 훈련을 이어왔으며, 첫 출전임에도 동메달을 획득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외에 빙상쇼트트랙, 아이스하키 등 다양한 종목에서 점수를 보냈다.

7개 종목 250명이 참가한 전남 선수단은 종합 9위(종합득점 304점)를 차지했다. 비록 목표(종합 8위) 달성에는 실패했지만, 금메달 14개와 은메달 10개를 기록하며 목표 메달(금 13·은 8)은 초과 달성했다.

크로스컨트리에서는 다수의 다관왕을 배출했다.

조다운(전남체고 1년)은 여U18 클래식 5km, 프리 10km, 복합, 스프린트 1.2km를 석권하며 4관왕에 올랐다. 김찬우(화순초 6년) 역시 남U12 클래식 2.5km, 복합, 스프린트 0.7km 등에서 활약하며 4관왕을 달성했다.

이운주(전남체고 1년)도 스프린트 1.2km를 비롯해 3관왕에 오르며 차세대 기대주로 자리매김했다.

이외에 김찬혁(화순제일중 2년)이 금메달 1개를 보냈고, 전다경(전남체고 2년)은 은메달 4개를 획득하며 안정적인 경기력을 선보였다. 김시울(화순초 6년) 또한 금·은·동메달을 각각 1개씩 따내며 팀 성적에 기여했다.

바이애슬론에서는 남일부 스프린트 10km에서 티도페이 랍신(전남체육회)이 금메달을 차지하며 전남 일반부의 자존심을 세웠다.

이어 집단출발 15km에서 알렉산드르 스타로두베츠(전남체육회)가 은메달을 획득했고, 남일부 22.5km 계주에서는 랍신·스타로두베츠·김은호·이인복이 팀워크를 발휘하며 은메달을 추가했다.

산악(아이스클라이밍) 종목에서도 경쟁력을 확인했다.

남일부 리드에서 이영진(월출마당산악회)이 금메달을 차지했고, 스피드 종목에서도 은메달을 추가했다. 송하중 기자 hajong2@gwangnam.co.kr

광주FC, 시즌 개막전서 제주와 0-0 무승부

승점 1점 획득...제주 원정 11경기 연속 무패



프로축구광주FC가 2026시즌 K리그1 시즌 첫 경기에서 승부를 거치지 못했다.

광주FC는 1일 제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하나은행 K리그1 2026 1라운드 제주와의

시즌 개막전에서 0-0 무승부를 기록했다. 광주는 이번 경기에서 유효슈팅 3개를 때려냈지만, 모두 골로 연결되지 않으면서 승점 1점을 얻는 데 만족해야 했다. 이날 데뷔전을 치른 이정규 감독은 첫 승 기회를 다음으로 넘겼다. 다만 광주는 제주 원정 연속 무패를 11경기(5승 6무)로 늘렸다.

이날 광주는 4-4-2 포메이션을 가동했다. 박정인과 최혁욱이 최전방에 이름을 올렸다. 중원은 정지훈, 문민서, 유재호, 신창무를 배치했고

후방은 권성윤, 김용혁, 민상기, 하승운이 맡았다. 골키퍼 장갑은 김경민이 썼다.

전반 11분 광주는 아쉬한 실점 위기를 넘겼다. 상대 신상운이 페널티박스 안에서 김경민의 손에 걸려 넘어졌고, 페널티킥이 선언됐다. 하지만 비디오

판독 끝에 페널티킥이 취소되면서 한숨을 돌렸다.

이후 전반 30분에는 수적 우위를 점했다. 상대 이탈로가 최혁욱을 저지하는 상황에서 발목 인근을 강하게 밟았고, 주심은 곧바로 레드카드를 꺼냈다. 유리한 고지에 선 광주는 주도권을 잡고 공세를 펼쳤지만, 상대의 수비를 뚫지 못한 채 전반전을 마쳤다.

후반 시작과 함께 광주는 김용혁, 정지훈 대신 안영규, 김진호를 투입했다. 이어 후반 17분에는 권성윤, 하승운 대신 안혁주, 프리드슨까지 투입했다.

후반 21분에는 코너킥 상황에서 신창무가 슈팅을 날렸으나 골로 연결되지 않으면서 아쉬움을 삼켰다.

추가시간은 2분이 주어졌다. 그러나 박정인의 슈팅까지 빗나가면서 양 팀 모두 득점 없이 경기가 끝이 났다.

광주는 오는 7일 오후 4시 30분 홈 개막전에서 인천유나이티드를 상대로 시즌 첫 승을 노린다.

송하중 기자 hajong2@gwangnam.co.kr